

포로의 현장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증거한 70인 제자 에스라 -복음으로 여는 에스라- 에스라 7:11-13, 누가복음 1:1-4

정윤돈 목사님

* **스7:11-13**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지어다

* **눅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생명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과 해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시대 뿐만 아니라 구약의 포로시대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은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성취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였다.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이 주제이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신 것이다.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번역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현장에서 삶, 문화화가 안 되어있다. 그래서 성경적 RUTC운동을 통해서 흑암문화, 사탄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 목회자는 70현장, 중직자들은 70산업, 램넌트들은 70작품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주셨다. 계속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잡을 미션이다.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가르친 대표적인 70인 제자가 바로 에스라이다. 지난번에 역대하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하서의 마지막 3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다. 오늘 읽은 에스라 1장 2절이 역대하 마지막 구절과 동일하게 시작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편집, 설계, 디자인한 인물이 에스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에스라는 주전 약 5세기에 페르시아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강력한 바벨론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페르시아였다.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3차 때(BC.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런데 말을 또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하면 또 때리신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 눈치를 쬐 램넌트들이 있었다. 1

차 포로로 끌려간 램넌트들이다. 마음의 뜻을 정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보면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부모님, 선생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작은 것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시대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 후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1)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 귀환은 BC.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돌아왔다.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귀환하여 성전재건을 시작하였으나 BC.536년부터 BC.520년까지 16년간 성전건축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가 재건을 독려하여 드디어 4년 후인 BC.516년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다.

(2) 2차 포로귀환은 BC.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귀환하였으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스라서가 2차 포로귀환 때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3) 3차 포로귀환은 BC.445년에 총독 느헤미아가 주축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 귀환하였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인 제자들을 통하여 어쩌면 완전히 사라져 버릴 뻔했던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과 교화와 성전을 회복하고 정리한 남은 자 70인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인 70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도 아직 변화시켜야 할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었고 세계를 살릴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2차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결혼한 이방여인들을 쫓아냄으로써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인 개혁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필요한 조치였다. 이방여자를 통해 들어온 우상과 문화를 쫓아낸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세속화, 세상화되고 재앙과 저주에 임하게 된다. 즉,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도 남은 자, 램넌트들은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완전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후대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1.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인 제자들이 회복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남은 자들은 70인 제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였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남은 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시 재건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 성전재건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

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시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② 또한 2장 1절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성전건축을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③ 그러나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 선으로 이겨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그 악한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양보,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 정도로 영향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뇌물을 주어 성전건축을 방해하였다. 에스라서 4장 5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라고 기록되었다.

④ 그러나 다리오 왕 2년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편지를 써서 성전재건을 도와주었다. 에스라서 5장 5절에서 6절이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

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박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페르시아 이방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렸던 명령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불신자, 여러분의 적들도 여러분을 돕는 일이 일어남을 믿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받은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건축을 하도록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⑤ 그리하여 결국 페르시아(바사)왕들의 도움으로 스룹바벨은 성전건축을 지속하여 완성하였다. 그해가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후인 BC.516년이다. 에스라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성전이 완성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완전 이방인인 왕들이 도운 것이다.

(2) 또한 남은 자 70인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다니엘은 모아둔 자료를 분류, 번역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전의 모든 남은 자들의 말씀을 잘 정리한 사람이 대표적인 70인 제자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였다. 왕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던 에스라는 아다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다. “모든 왕의 왕 아다사스다 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성경 모든 말씀을 집대성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말씀 정리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남은 자 램넌트 출신인 70인 제자 에스라였던 것이다.

(3) 다음으로는 70인 제자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벽의 재건은 독립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군사적인 정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미있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같다. 적국인 페르시아에서 70인 제자, 고급관료를 지낸 램넌트들 때문에 마음을 열고 독립군을 인정해 준 것이다.

2. 그러나 돌아온 남은 자들은 여전히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버릴 것, 지울 것, 잊을 것과 갱신할 것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생기면 내 체질,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해석은 안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받고 누릴 축복이 아머아마하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체질을 바꾸기를 바란다.

(1) 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작은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다. 성전건축을 하려면 일 해야지, 헌금을 해야하는데 마침 옆에서 방해하는 것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주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윈리스 집중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도 집중되게 된다. 나를 위해서 집중하면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들은 70인 제자들인 학개, 스가라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다시 성전건축에 도전하였고, 결국은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던 해인 BC.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드신다. 광야생활하는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노래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원망,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적하고 불만, 불평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같은 포로생활이어도 오웬은 총리가 되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2) 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울무, 틀,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정리와 말씀운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WRC, 훈련,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답, 결론내지 못하고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

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 볼 때가 많은 것 같다.

(3)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족속들과 이방결혼을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제결혼을 반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이방여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 신들을 가지고 시집을 온 것이다. 지금은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사상과 이념이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집안과 자식은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 이야기들을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결혼과 속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결혼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내용으로 에스라서 마지막 장인 10장이 끝나고 있다. 에스라가 직접 이혼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때 한 중직자가 일어나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쳐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남자 램넌트들은 다니엘과 에스라처럼, 여자 램넌트는 에스터, 마리아처럼 준비하다가 응답받아야 한다. 세상으로 오염되고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4) 결국 에스라는 말씀정리를 통하여 21기지 전도자의 삶을 완성하였다. 에스라는 포로의 시대에 말씀을 정리하여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한 대표적인 70인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에스라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았다. 성전회복, 건축회복이 그리스도와 교회 회복, 복음회복이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실현하였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위해 도전하였다. 이때 너무나도 쉽게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후 70인 제자 에스라는 24시간 기도에 집중하다가 절대불가능한 25시의 응답을 받았고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남기는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면 에스라처럼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잘못 심겨진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게 된다. 응답받으면 다 변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람이 70인 제자 에스라처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평생 누리기를 축원드리겠다.

결론으로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와 오력을 각인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과 영력이다.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복음과 언약을 정리하면 에스라처럼 강대국도 움직일 수 있는 영력을 얻게 될 것이다.
2. Vision, 비전과 지력이다. 우리들이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전을 품는다면 에스라처럼 세계를 살릴 학자의 지력도 주실 것이다.
3. Dream, 꿈과 체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현장을 살릴 체력도 허락하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와 경제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조금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윈리스 집중을 하여도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과 인력이다. 에스라처럼 말씀회복과 교회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에스라에게 도움을 주었던 페르시아의 왕들과 관원들과 같은 만남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설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리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과 정과 회복된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70인 제자 램넌트로 쓰임 받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아 그 축복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